

CEO Report

2022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동향분석실

02_호

2022.07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및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1/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됨.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

2022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하며 3.1% 성장함. 국내 주요 기관들은 방역조치 완화 기조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수출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국내경제성장률을 2.7~2.8% 수준으로 전망함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p 인상함. 2022년 상반기 코스피(KOSPI)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함

2022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일반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1.9% 감소가 전망됨.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3.7%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상대적 금리경쟁력 약화가 예상되어 7.2% 감소할 전망이다. 변액저축성보험은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신규 판매 감소와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0% 감소가 전망됨

2022년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이 전망됨.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 및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됨. 2022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1.3%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2022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가 전망됨

2022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4.4%, 손해보험이 8.3% 증가할 전망이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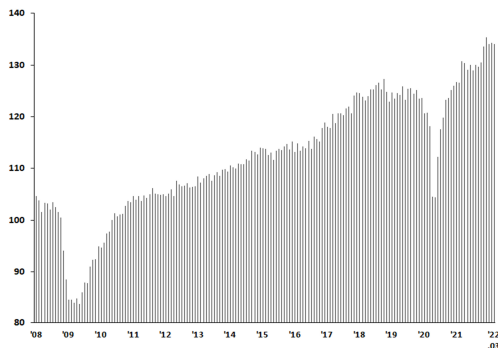
경제·금융시장

1. 세계경제

○ 코로나19로 대폭 감소하였던 세계 교역량은 2021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21년 12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함

- 세계 교역량은 2020년 5월 코로나19 영향으로 9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1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1년 12월 최고치를 기록함
- 우리나라 수출의존도는 2020년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반등하여 2022년 1/4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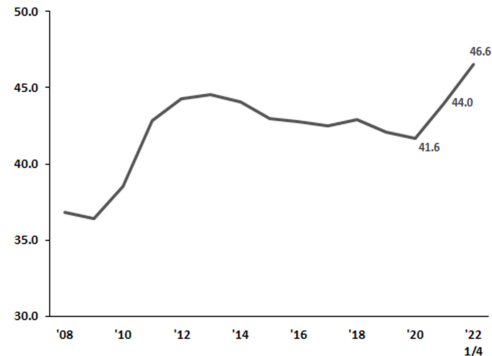
〈그림 I-1〉 세계 교역량 추이



주: 2010년이 100인 지수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2. 5)

〈그림 I-2〉 우리나라 수출의존도



주: 수출의존도=수출/GDP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및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1/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됨

-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은 6.1%로, 코로나19로 인한 역성장에서 벗어나 큰 폭 반등함
- 2022년 1/4분기 미국과 일본 경제성장률은 각각 -1.5%, -1.0%로 마이너스 성장하였고, 중국과 유로 지역 경제는 각각 4.8%, 1.1% 성장함

〈표 I-1〉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세계	3.3	3.7	3.6	2.9	-3.1	6.1	-
선진국	1.8	2.5	2.3	1.7	-4.5	5.2	-
신흥국	4.4	4.7	4.6	3.7	-2.0	6.8	-
미국	1.7	2.3	2.9	2.3	-3.4	5.7	-1.5
중국	6.9	6.9	6.8	6.0	2.2	8.1	4.8
유로지역	1.9	2.6	1.8	1.6	-6.4	5.3	1.1
일본	0.8	1.7	0.6	-0.2	-4.5	1.6	-1.0

주: 1)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2)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연율화한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나,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2. 5); 중국 국가통계국(2022. 4); Eurostat(2022. 5); 일본 내각부(2022. 5)

○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

- 2022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기저효과 소멸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으로 성장 둔화가 전망됨
-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9%에서 3.6%로 1.3%p 하향 조정함¹⁾

〈표 I-2〉 2022년 IMF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IMF	2021. 10	4.9	4.5	5.1	5.2	4.3	3.2	5.6
	2022. 4	3.6	3.3	3.8	3.7	2.8	2.4	4.4

자료: IMF(2021. 10, 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¹⁾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2. 국내경제

○ 2022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큰 폭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하며 3.1% 성장함

- 설비투자는 2022년 1/4분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부진이 심화됨
- 민간소비는 2021년 4/4분기에 이어 2022년 1/4분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됨

〈표 I-3〉 실질GDP 지출항목별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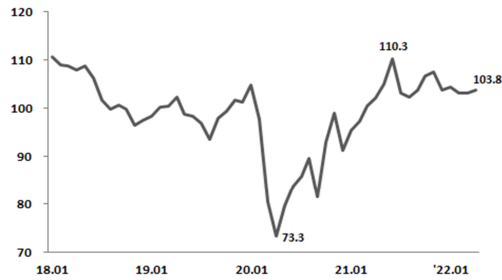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0.9	1.9	6.0	4.0	4.2	4.0	3.1
- 민간소비	-5.0	1.2	3.7	3.3	6.3	3.6	4.5
- 설비투자	7.1	12.4	12.8	4.2	4.0	8.3	-6.0
- 건설투자	-0.4	-1.8	-1.2	-1.2	-1.7	-1.5	-5.3
- 지식생산물투자	4.0	4.2	3.9	3.9	3.9	4.0	5.8
- 재화수출	-0.5	6.4	23.5	6.0	6.3	10.0	8.1
- 재화수입	-0.1	9.2	16.0	9.6	13.2	11.9	8.6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2022. 5), 『국민계정』

○ 2022년 1/4분기 민간소비심리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기계수주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세 약화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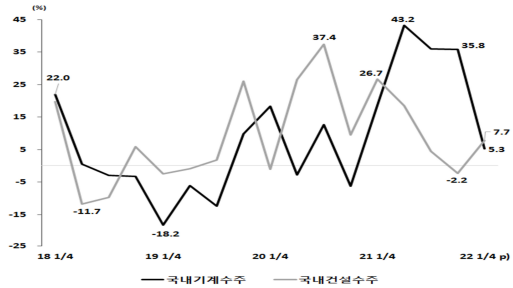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 6월, 2년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점차 하락함
- 2022년 1/4분기 기계수주와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7.7% 증가함

〈그림 I-3〉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그림 I-4〉 기계수주²⁾ 건설수주³⁾ 증가율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기계수주는 선박 제외임
3) 경상임

자료: 통계청

○ 국내 주요 기관들은 방역조치 완화 기조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수출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국내경제성장률을 2.7~2.8% 수준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8%로 예측함
- 2022년 국내 경기는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대외 여건이 악화되어 수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I-4〉 국내 경제 전망

구분	2020	2021	2022(F) ¹⁾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GDP	-0.9	4.0	2.7	2.8
민간소비	-5.0	3.6	3.7	3.7
설비투자	7.1	8.3	-1.5	-4.0
건설투자	-0.4	-1.5	-0.5	-1.3
지식생산물투자	4.0	4.0	4.0	4.6
상품수출	-0.5	10.0	3.3	4.3
상품수입	-0.1	11.9	3.4	4.2
실업률	4.0	3.7	3.1	3.1
소비자물가	0.5	2.5	4.5	4.2
경상수지(억 달러)	759	883	500	516
상품수지(억 달러)	806	762	510	442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억 달러)	-47	121	-10	74

주: 1) 2022(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2. 5),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2. 5),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3. 국내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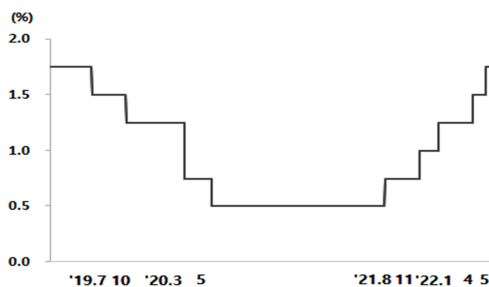
가. 금리

-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p 인상함²⁾

-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022년 1월, 4월, 5월에 0.25%p씩 세 차례 인상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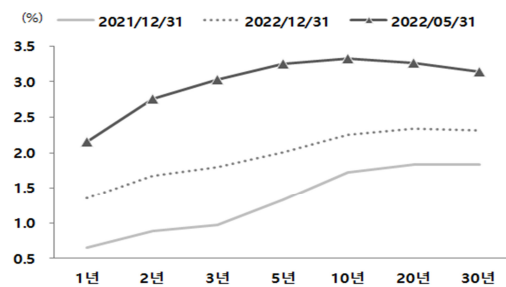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국내 추경 편성 부담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함

〈그림 I-5〉 한국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I-6〉 한국 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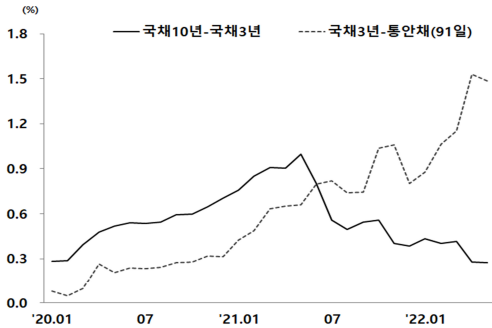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으며, 신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 등의 우려로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됨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단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으로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축소됨
- 한편, 신용 스프레드(회사채AA-, 국고채 3년물)는 국채발행 확대 및 2차 추경 등의 수급 이슈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어 1월 57.2bp에서 5월 75.6bp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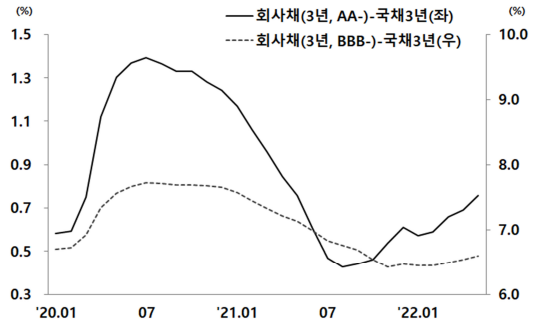
2)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 7. 13), “통화정책방향”

〈그림 I-7〉 장단기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그림 I-8〉 신용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하반기 미국 국채(10년)금리와 우리나라 장기국채(10년)금리, 단기국채(3년)금리가 각각 3.10%, 3.19%, 3.0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표 I-5〉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금리		국내 장기국채(10년)금리		국내 단기국채(3년)금리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2.30	3.10	2.89	3.19	2.53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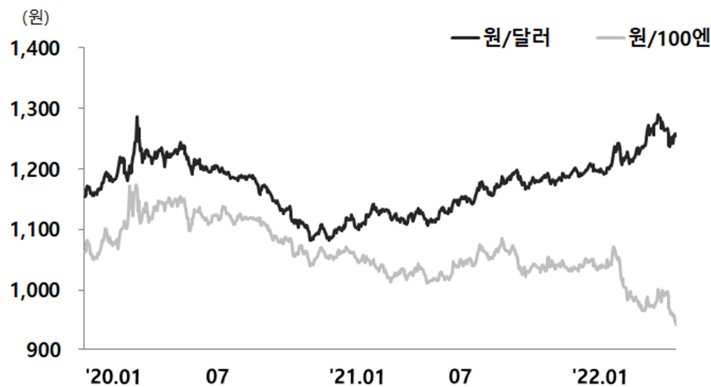
주: 2022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값으로, 예측 시점은 6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나. 환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 완화 가속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상승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긴축 기조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에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개입 의지가 반영되며 제한된 상승세를 보임
 - 국내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3월 초 1,200원에서 5월 1,289원까지 상승함
- 원/엔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고 일본 중앙은행(BOJ)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스탠스를 고수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됨

- 원/엔 환율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었으나,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 약화로 상승세가 제한됨
- 한편, 미 연준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미·일 간 금리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엔 환율은 5월 말 941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

〈그림 I-9〉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하반기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이 1~5월 평균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달러/유로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I-6〉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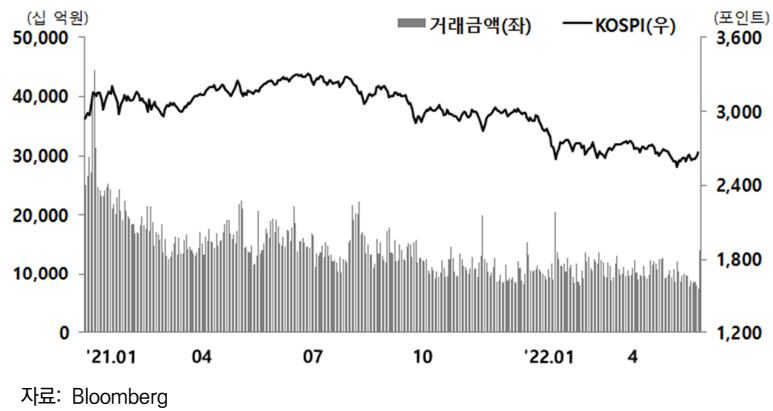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Standard Chartered	1,224	1,185	121	125	1.10	2.17
JP Morgan Chase		1,300		133		1.01
Mizuho Bank		1,270		133		1.11
Wells Fargo		1,235		130		1.06
Morgan Stanley		1,260		133		2.08

주: 2022 하반기에 대한 환율 전망으로, 예측 시점은 6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다. 주가

- 2022년 상반기 코스피(KOSPI)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2,30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코스피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중국의 봉쇄조치 등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연초 3,000포인트에서 6월 말 2,300포인트 대까지 하락함

〈그림 I-10〉 주가지수 추이



II

보험시장

1. 보험산업 총괄

○ 2022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생명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보험과 변액보험 실적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가 전망됨
- 2022년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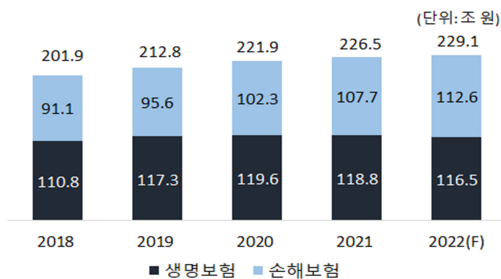
〈표 II-1〉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117.3	5.8	119.6	2.0	118.8	-0.6	116.5	-1.9
손해보험	95.6	5.0	102.3	7.0	107.7	5.3	112.6	4.6
보험산업 합계	212.8	5.4	221.9	4.3	226.5	2.1	229.1	1.2
(퇴직연금 제외)	(176.4)	(1.2)	(186.2)	(5.6)	(188.4)	(1.2)	(188.7)	(0.2)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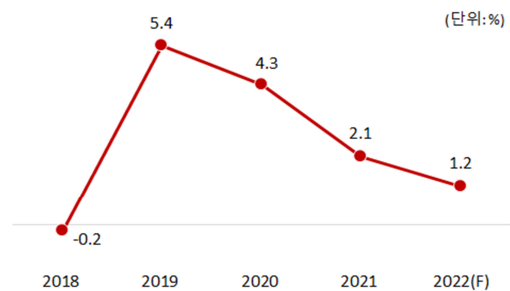
〈그림 II-1〉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2〉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Box 1 2021년 10월 전망 이후 환경변화

-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함
 -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락다운과 봉쇄정책 등으로 국제 공급망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에너지, 광물,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함
 - 또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에너지와 기타 원자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였고, 한국은행 또한 2022년 1월, 4월, 5월, 7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급격한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10월 전망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보험 산업의 성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저축보험의 상대적인 금리경쟁력은 약화되고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로 저축여력 또한 위축될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생명보험산업의 투자형상품인 변액보험 성장성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보장성보험 수요 또한 축소될 수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 비중이 크지 않고 투자형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시중금리 급등의 영향이 크지 않으나, 전반적인 경기 위축은 기업성보험 성장에 부정적임
- 시중금리 상승은 보험회사의 투자영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이 보험금 증가(실손, 자동차 등)로 이어질 경우 보험료 조정이 어렵다면 보험영업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지급여력제도하에서는 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킴
- 한편, 2021년 7월 1일 신한생명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흡수합병이 완료되면서 두 회사의 회계 통합이 2021년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실적에 영향을 미침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2021년 상반기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등은 당기순이익으로 결산 완료된 이후에 신한라이프와 회계 통합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2021년 상반기 수입보험료 실적은 전체 생명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두 회사의 합병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주요 판매상품이 포함된 생명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침

2. 초회 및 위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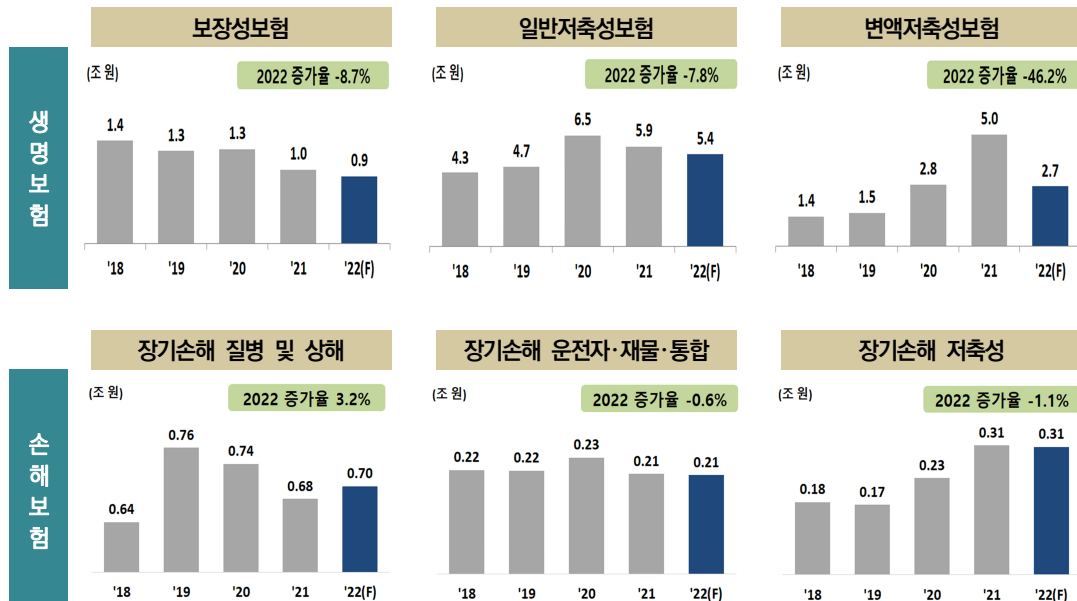
가. 초회보험료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보장성보험과 일반저축성보험,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³⁾ 초회보험료는 질병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위축,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약화로 감소세가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⁴⁾ 초회보험료는 2012년 급증한 저축보험의 만기 후 재가입 수요가 존재하나 시중금리 상승으로 예·적금 상품 대비 상대적인 금리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임
-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중금리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의해 큰 폭의 감소세가 전망됨

○ 손해보험의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건강보장 수요 확대에 소폭 증가가 예상됨

〈그림 II-3〉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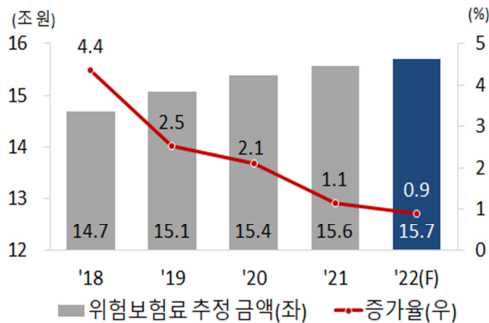
3) 일반계정의 사망보험 등과 특별계정의 변액종신 등을 포함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함

4)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제외)을 의미함

나. 위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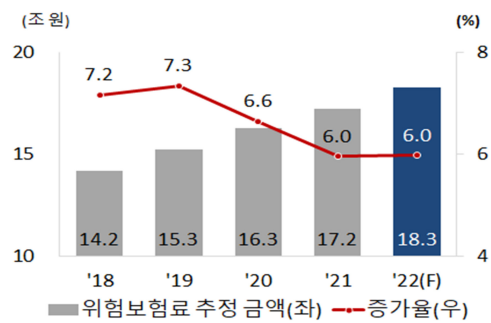
- 2022년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보험료는 각각 0.9%,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산업이 보장성보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위험보험료 증가세는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임

〈그림 II-4〉 생명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II-5〉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금융감독원

3.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개요

-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저축성보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과 일반저축성보험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0.6% 감소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유지율 제고를 위한 수수료 규제 강화,⁵⁾ 일부사의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함
 - 일반저축성보험은 전년도 저축보험 판매 대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7.8% 감소함
 -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 상승과 소비자들의 투자형 상품 선호 확대 등으로 신규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6.2% 증가함

⁵⁾ 2021년부터 유지율 제고 등을 위해 보험설계사의 계약 첫 해 수수료가 1년 보험료의 1,20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함

○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가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질병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 종신보험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유입으로 전년 대비 3.7% 성장이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기존 저축보험의 만기 후 재가입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경쟁력 약화,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 축소로 전년 대비 7.2% 감소가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신규 판매 감소와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0% 감소가 전망됨

〈표 II-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²⁾	444,468	3.9	461,395	3.8	458,383	-0.7	475,565	3.7
저축성 ³⁾	474,110	-6.0	501,451	5.8	484,015	-3.5	432,986	-10.5
일반저축성	316,422	-5.7	347,442	9.8	320,389	-7.8	297,241	-7.2
변액저축성	157,688	-6.5	154,009	-2.3	163,626	6.2	135,744	-17.0
기타 ⁴⁾	7,659	0.6	7,498	-2.1	7,583	1.1	7,694	1.5
(퇴직연금 제외)	926,237	-1.4	970,344	4.8	949,982	-2.1	916,244	-3.6
퇴직연금	246,387	46.0	225,528	-8.5	238,511	5.8	249,100	4.4
생명보험 합계	1,172,624	5.8	1,195,872	2.0	1,188,492	-0.6	1,165,344	-1.9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저축성보험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함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장성보험⁶⁾

○ 2021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유지율 제고를 위한 수수료 규제 강화, 일부사의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함

- 2020년에는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⁷⁾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설계사 수수료 규제⁸⁾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등으로 신규 판매가 감소함

⁶⁾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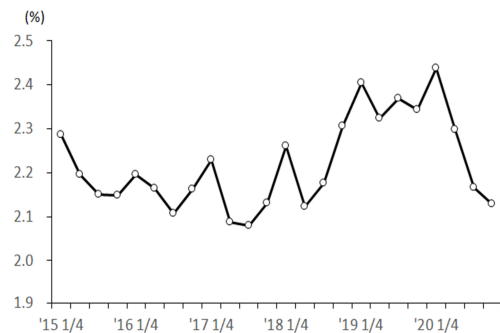
⁷⁾ 저해지·무해지 상품의 판매규제를 앞두고 해당 상품의 가입 수요가 확대되었고, 4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이전 신규 가입 수요 증가 효과도 있었음

- 한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으로 보장성보험 비중이 높은 오렌지라이프의 2021년 상반기 실적이 누락되면서 2021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에 영향을 미침

○ 2022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신규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병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3.7% 성장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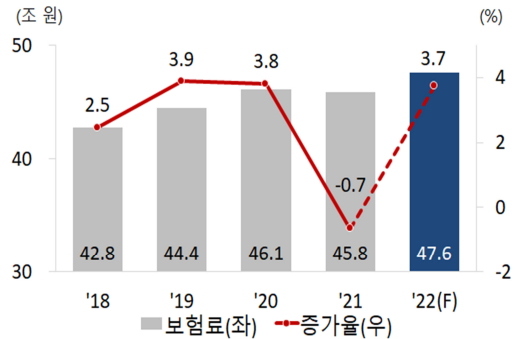
- 경제 정상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 IFRS17과 K-ICS 시행을 앞둔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 노력이 보장성보험 성장에 긍정적일 것임
- 보장성보험 중 종신보험은 신상품 개발이 위축되면서 신규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질병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가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질병 및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장 수요 확대 추세로 신상품 개발과 판매 확대가 예상되지만 요율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임
- 보장성보험의 경우 기존 계약의 계속보험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계속보험료 유입에 의한 자연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그림 II-6〉 보장성보험 해지율 추이(분기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7〉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일반저축성보험⁹⁾

○ 2021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저축보험 고성장에도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7.8% 감소함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8. 2),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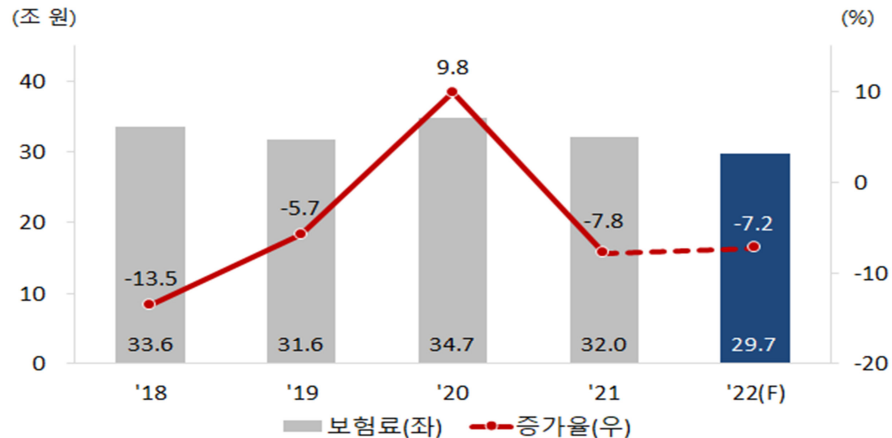
9)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을 포함함

- 2020년 저축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 대비 상대적인 금리경쟁력과 예비적 저축 수요 유입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 판매가 크게 증가함
- 2021년에는 금리 상승으로 저축보험의 상대적 금리경쟁력이 약화되고,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나타나면서 수입보험료가 감소함

○ 2022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급증했던 일시납 보험료의 만기 후 재가입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상대적 금리경쟁력 약화,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 축소 등으로 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예·적금 금리의 빠른 상승은 저축보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최근 보험회사 자산건전성 약화로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보험 신규판매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은 판매규모 확대에 부정적임
- 한편 2012년 대규모 판매된 저축보험의 만기보험금 중 일부가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2년 7월 저축성보험 세제요건 강화로 2012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85.0% 급증한 바 있으며, 이 중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 계약의 10년 만기가 2022년에 도래함
- 일반연금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수요로 소폭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연금¹⁰⁾은 세제혜택 관련 제도 변화가 없고 세제혜택이 유사한 개인형 IRP로 수요가 대체되면서 역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8〉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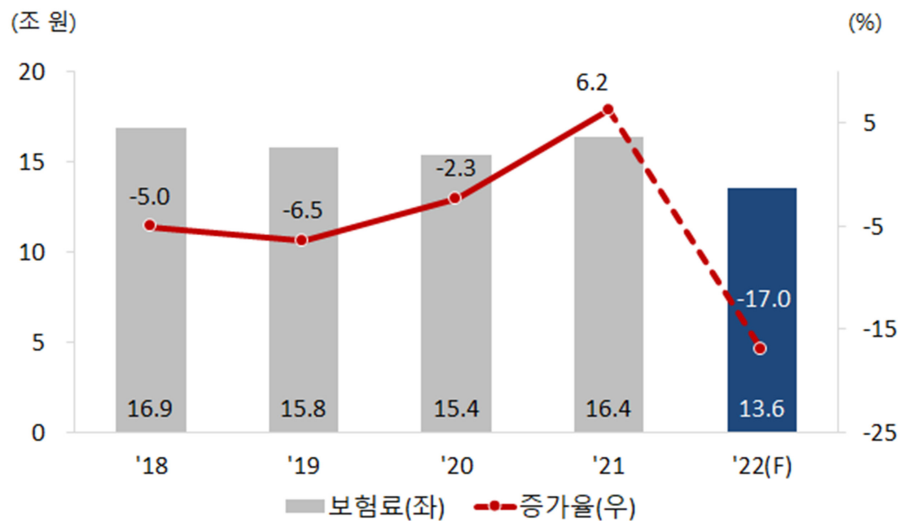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일반저축성보험에는 변액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일반연금, 개인연금, 생사혼합보험 등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¹⁰⁾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가운데 하나임

라. 변액저축성보험¹¹⁾

- 2021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 호조 및 소비자의 투자형 상품 선호도 확대 등으로 신규 가입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6.2% 증가함
 - 변액저축성보험의 신규판매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익 확정을 위한 해지가 증가하면서 계속보험료는 오히려 감소함
- 2022년 변액저축성보험은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신규 판매 감소와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0% 감소가 전망됨
 - 소비자들의 투자형 상품 관심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신규 판매가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계약의 해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II-9〉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변액저축성보험에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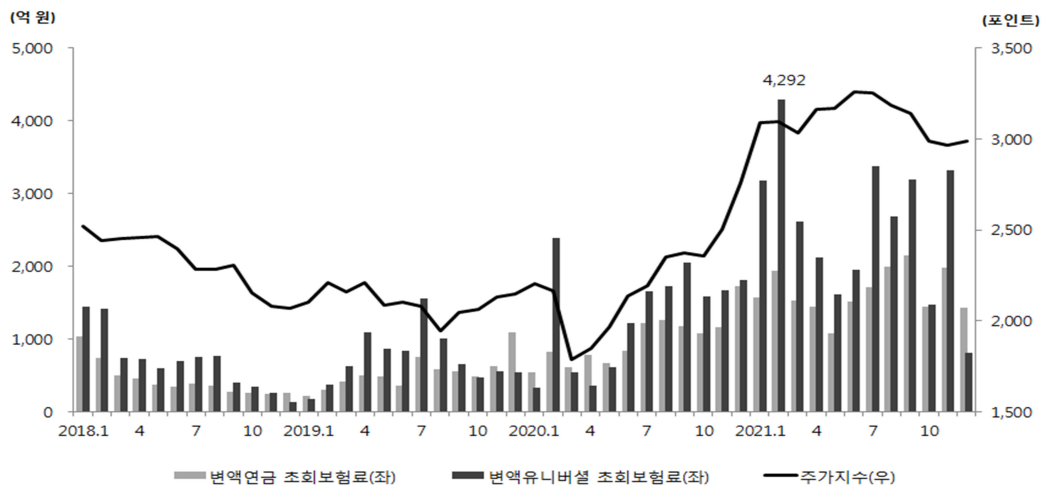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1)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Box 2 주가지수와 변액저축성보험

- 2021년 상반기 주가지수 상승세로 인해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하반기 주가지수 상승이 정체되면서 증가세는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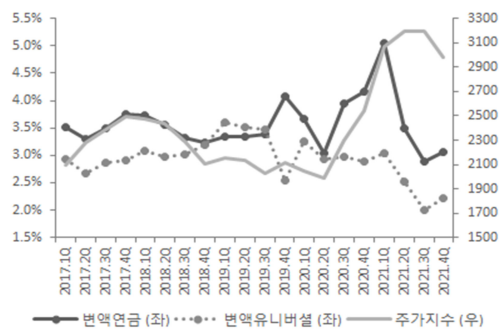
〈Box 2 그림 1〉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월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거래소

- 변액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주가지수 상승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 1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함

〈Box 2 그림 2〉 변액저축성보험 해지율(금액) 및 주가지수(분기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한국거래소

4. 손해보험

가. 손해보험 개요

-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로 전년 대비 5.3%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은 계속보험료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8.8% 증가함
 - 자동차보험은 하반기 보험료 인상 효과가 점차 소멸되면서 전년 대비 3.7% 증가함
 - 개인연금은 수요 둔화로 전년 대비 13.3% 감소하였으나 퇴직연금은 계속보험료 확대에 9.1% 증가함
- 20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실적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가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은 질병 및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확대에 전년 대비 1.3% 증가에 그칠 것임
 -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기타특종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의 특별한 변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14.9% 감소가 전망되며, 퇴직연금은 계속 보험료 유입으로 8.3% 증가가 전망됨

〈표 II-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9		2020		2021		2022(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 손해 보험	합계	530,989	5.0	559,223	5.3	588,345	5.2	618,885	5.2
	질병·상해	361,902	10.9	398,367	10.1	433,568	8.8	468,116	8.0
	저축성	34,394	-23.7	27,516	-20.0	21,994	-20.1	16,757	-23.8
	운전자	41,063	8.0	45,053	9.7	48,482	7.6	51,756	6.8
	기타 ²⁾	93,629	-2.8	88,287	-5.7	84,301	-4.5	82,255	-2.4
개인연금		32,912	-6.4	29,923	-9.1	25,932	-13.3	22,057	-14.9
자동차		175,677	5.1	196,128	11.6	203,470	3.7	206,205	1.3
일반손해보험		98,504	3.9	106,692	8.3	116,046	8.8	123,976	6.8
(퇴직연금 제외)		838,082	4.4	891,966	6.4	933,794	4.7	971,124	4.0
퇴직연금		117,781	9.3	131,183	11.4	143,080	9.1	154,999	8.3
손해보험 합계		955,864	5.0	1,023,149	7.0	1,076,873	5.3	1,126,122	4.6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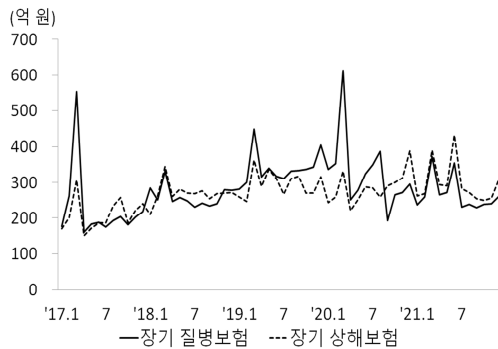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장기손해보험

○ 2021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5.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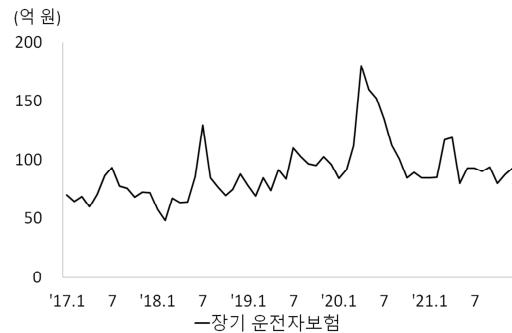
- 질병 및 상해보험은 갱신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계속보험료 유입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함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배상책임 강화에 따른 신규 가입 확대와 계속보험료 유입 증가로 성장함

〈그림 II-10〉 장기 질병·상해보험 초회보험료(월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1〉 장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월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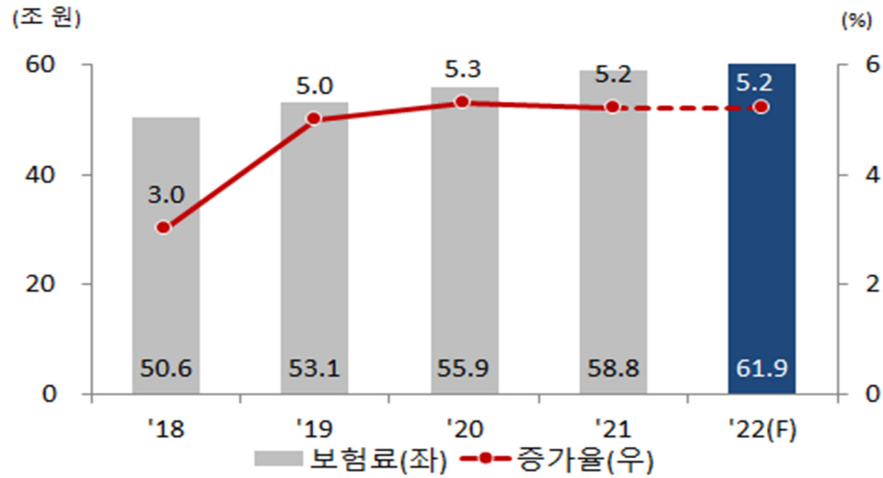
○ 2022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 및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됨

- 질병 및 상해보험은 무·저해지 보험상품¹²⁾ 변경 전 가입 수요 확대와 갱신보험료 인상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과다한 보험료 경쟁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해지율 산출 및 검증 모범규준’¹³⁾이 시행됨에 따라 상품이 변경되기 전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재물보험과 통합보험은 완만한 수준의 감소세가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장기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축소되고 있음

¹²⁾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을 의미하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함

¹³⁾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11. 8),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 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림 II-12〉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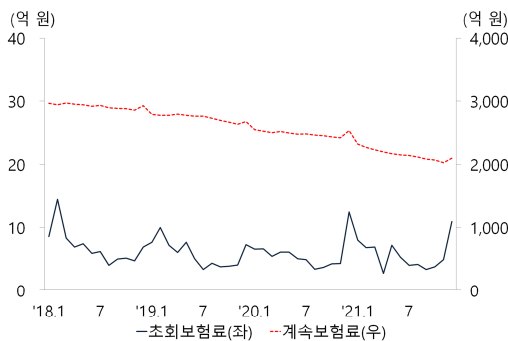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개인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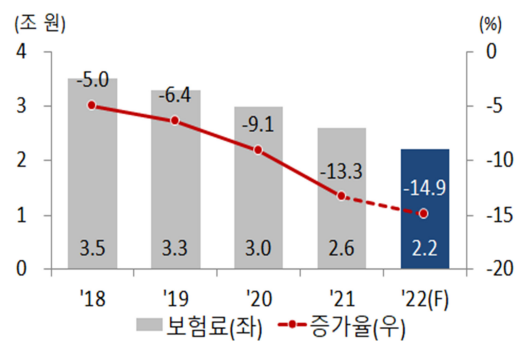
○ 개인연금¹⁴⁾ 원수보험료는 2021년 13.3%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도 14.9% 감소가 전망됨

〈그림 II-13〉 개인연금 초회 및 계속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4〉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4)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가운데 하나임

라. 자동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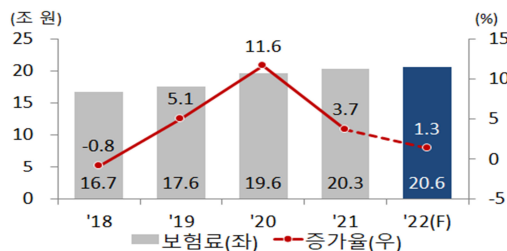
○ 2021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 소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에 그침

-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보험료 인상¹⁵⁾ 효과의 지속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¹⁶⁾에 따른 승용차 판매 확대 등으로 2021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20년 상반기 대비 5.0% 증가함
- 그러나 2021년 상반기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원수보험료 성장세는 크게 둔화됨
- 한편,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인상 효과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개선됨

○ 2022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하,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1.3% 성장하면서 성장성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과 이에 따른 실적 호조 등으로 2022년 4월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함¹⁷⁾
-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및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자동차보험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짐
- 금융감독원은 2022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에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 가입되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함¹⁸⁾
-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2년 6월까지 연장¹⁹⁾되어 승용차 판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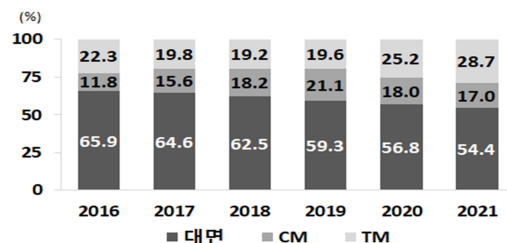
〈그림 II-1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6〉 채널별 자동차보험 판매 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5) 손해보험회사들은 2020년 2월 자동차 보험료를 약 3.5% 인상함

16) 정부는 2021년 민간소비 진작을 위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였고, 이를 2022년 6월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함

17)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들은 2022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약 1.2~1.4% 인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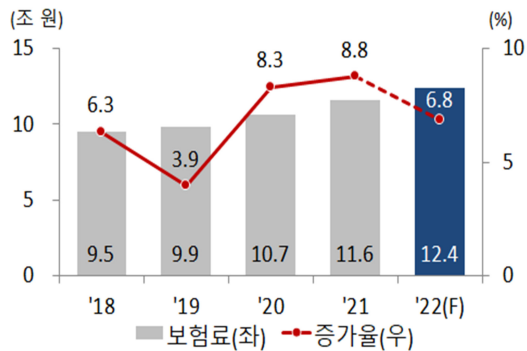
1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3. 28), “22. 4. 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19) 기획재정부(2021. 12. 20),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마. 일반손해보험

- 2021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함
 - 화재보험은 주택화재 관련 신규 가입이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15.3% 증가하였고, 해상보험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5.6% 증가함
 - 보증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도 휴대폰 할부 관련 보증보험 시장 둔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됨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 의무 강화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농작물 재해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의 호조세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함
- 2022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전년 대비 6.8% 증가가 전망됨
 - 화재보험은 주택 화재보험의 수요 증가로 인해 4.9% 증가가 예상되며, 해상보험은 수·출입 물동량 확대와 조선수주 증가 등으로 3.3% 증가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휴대폰 할부 판매 관련 보증보험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에 그칠 것임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 및 농산물재해 보험시장의 확대, 종합보험 및 기타특종의 신규담보 확대, 여행보험 회복세로 8.5%의 증가가 전망됨

〈그림 II-17〉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4〉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21		2022(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 합계	116,046	8.8	123,976	6.8
화재	3,185	15.3	3,339	4.9
해상	7,436	5.6	7,684	3.3
보증	20,305	0.0	20,575	1.3
특종 ²⁾	85,119	11.1	92,378	8.5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특종보험(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 권원보험 등)에 해외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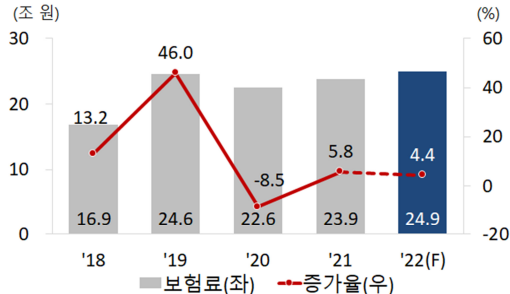
○ 2021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5.8%, 손해보험이 9.1% 성장함

- 2021년 말 DB형 사외적립비율이 90%에서 100%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큰 폭의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가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주로 기존 계약에서 유입되는 계속보험료 확대에 의해 성장함

○ 2022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4.4%, 손해보험이 8.3% 증가할 전망이다

- 생명보험은 2021년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가 마무리²⁰⁾되면서 2022년에는 낮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은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보험료 중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적립금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 신규고용 감소, 임금상승률 둔화, 금융업권 간 경쟁 확대 등과 같은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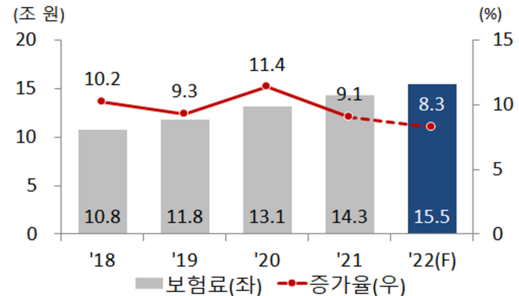
〈그림 II-18〉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9〉 손해보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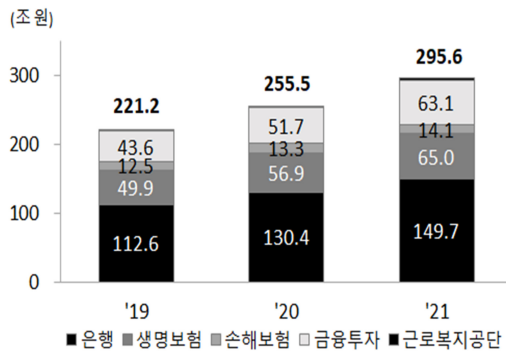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²⁰⁾ 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되었으며 2021년 말 100%로 확대됨

Box 3 퇴직연금 적립금 비교

- 2021년 말 기준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은행이 149.7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생명보험이 65.0조 원, 금융투자가 63.1조 원, 손해보험이 14.1조 원임
- 2021년 손해보험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이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은행(14.8%) 생명보험(14.1%), 금융투자(22.1%), 근로복지공단(15.3%) 모두 두 자릿수의 적립금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손해보험은 6.1% 증가에 그침
 - 손해보험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Box 3 그림 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자료: 금융감독원

〈Box 3 표 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은행	15.8	15.8	14.8
생명보험	14.0	14.0	14.1
손해보험	6.8	6.8	6.1
금융투자	18.6	18.6	22.1
근로복지공단	21.0	21.0	15.3
전체	15.5	15.5	15.7

자료: 금융감독원

저자약력

김세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최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김혜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hrkim@kiri.or.kr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김윤진 City, University of London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oonjinkim@kiri.or.kr

CEO Report 2022-02호

2022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발행일 2022년 7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